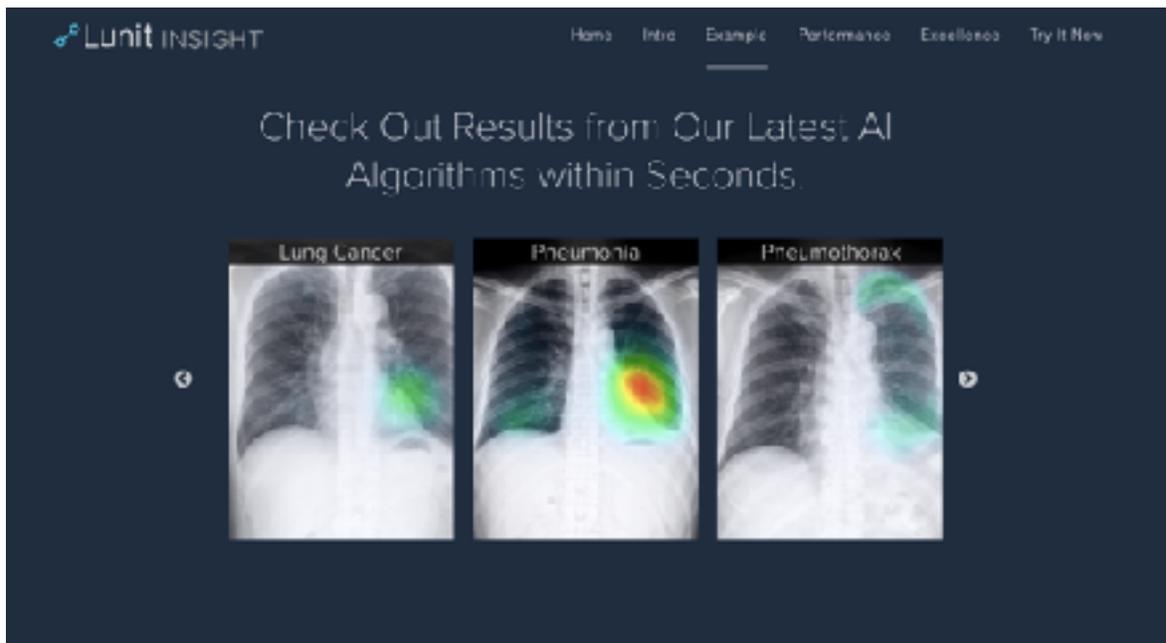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루닛', 미국서 의료영상 진단 온라인 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 공개

11월 26일 미 시카고서 열리는 '북미영상의학회'서 공개 및 시연, 2년 연속 '주목할 만한 전시' 인공지능으로 흉부 엑스선 온라인 실시간 판독 및 진단...정확도 98%에 이르러...일반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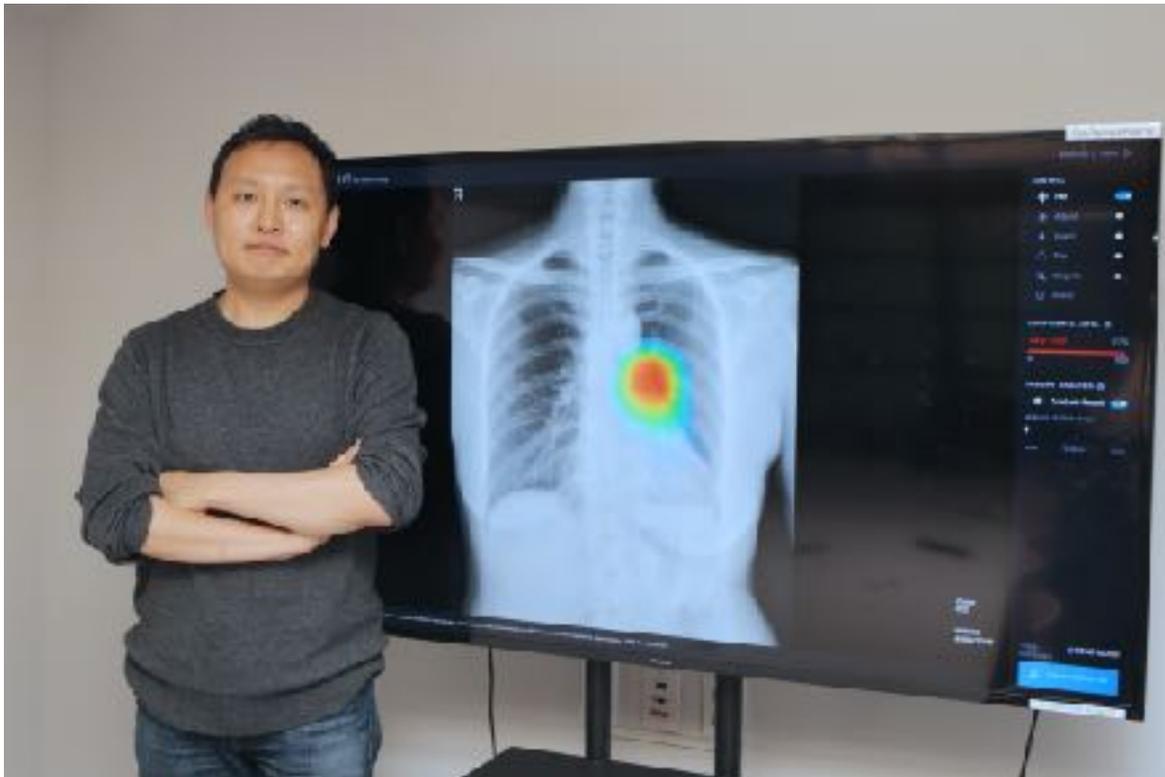
2017년 11월 26일 —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헬스케어 스타트업 '루닛'이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영상의학회(RSNA)'에서 신제품을 발표한다. 전세계 영상의학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 기간 동안 선보일 신제품은 '루닛 인사이트(Lunit INSIGHT)'로,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의료영상 진단 소프트웨어다. 현재 루닛 인사이트는 웹사이트(<https://insight.lunit.io/> 아래 사진)를 통해 일반 무료 접속 및 흉부엑스선을 이용한 주요 폐질환의 실시간 진단이 가능하다. 유방암 조기진단을 위한 유방촬영술용 솔루션도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루닛 인사이트 웹사이트에 의료영상을 업로드 한 뒤 몇초 안에 인공지능 진단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현재 루닛 인사이트는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서 폐암 결절, 결핵, 기흉 및 폐렴과 같은 주요 폐질환을 검출해낸다. 진단 결과에는 결함 위험 수준뿐 아니라 병변의 위치 또한 표시해 보여준다. 진단 정확도는 98%에 이른다. 높은 정확도에는 루닛만의 독자적인 '딥러닝' 기술

이 있다.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루닛의 기술력으로 인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번에 선보일 ‘루닛 인사이트’다.

루닛 백승욱 대표(아래 사진)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 의료 데이터 진단과 해석에 있어 앞서나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루닛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루닛 인사이트를 통해 의료영상 진단 및 치료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환자들을 위해 더욱 정확하고 일관되며 효율적인 임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도록 의료진에게 힘을 실어주고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루닛과 서울대학교 병원이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는 폐결절의 경우 루닛 인사이트를 통해 진단했을 때 흉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19명의 의사들의 판독 성능을 모두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내과의같은 경우 최대 평균 14%의 판독 성능 향상을 보였다.

루닛 인사이트를 처음으로 공개하게 될 RSNA는 북미 최대의 영상의학기기 전시회로, 전세계의 영상의학 전문가는 물론이며, 영상의학기기를 다루는 기업체도 주목하는 행사다. 지난해의 경우 136개국 출신 5만4000여 명이 몰렸다. 루닛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참가하며, 2년 연속 ‘주목할 만한 전시’로 선정됐다. 루닛 부스는 물론,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즈 (Nuance Communications)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시스템에서도 루닛 인사이트를 시연해 볼 수 있다.



백승욱 루닛 대표(왼쪽)와 김민성 메디컬 디렉터가 루닛 인사이트의 진단 내용을 검토중이다.

전시 기간 중 11월 28일에는 루닛 서범석 의료담당 이사가 발표 세션에 초대되어 '루닛 인사이트'를 직접 소개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세션을 통해 루닛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결과물 총 3편을 발표하게 된다.

2013년 설립된 루닛은 올해 CB인사이트가 선정한 'AI 100대 스타트업'에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국제 헬스케어 산업을 변화하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앞서 루닛은 2015년 이미지넷(ImageNet/5위), 2016년 TUPAC(1위), 올해 카멜리온(Camelyon/2017년 11월 현재 1위) 등 이미지 인식 기술을 평가하는 주요 국제 경연대회에서도 상위권에 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언론 보도 문의: 루닛 미디어 (media@lunit.io)